

##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의안 번호	930
----------	-----

발의연월일 : 2012. 9. 11

발 의 자 : 정현희 · 이효상 ·

신성봉 · 황세영(4명)

### 1. 주 문

코스트코는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율조정기간인 8월 31일 오픈식을 열고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진장동 부지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해 왔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울산지역 상인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감안하여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2. 제안이유

2012년 8월 31일 코스트코 영업 개시날 10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 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 중임에도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언제 영업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모집을 하였으며,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더니 결국 오픈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코스트코 개점으로 인해 우리 중구 지역의 상권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가 영업을 중지하고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3. 결 의 문 : 따로 붙임

## 코스트코 사업조정 자율협상 참여 촉구 결의문

코스트코는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율조정기간인 8월 31일 오픈식을 열고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진장동 부지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들은 코스트코 부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또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 유치를 울산시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011년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복구청의 건축허가 반려가 잘못이

라며 직접 허가를 내주며 중소기업들의 생존권보다 진장유통사업단지조합과 코스트코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2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코스트코는 느닷없이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선례를 보더라도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 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갔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 중임에도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언제 영업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모집을 하였으며, 집집마다 우편문을 발송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더니 결국 오픈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상인들이 코스트코 측에 요구하는 자율협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 ② 일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이에 코스트코 입점으로 울산지역 상인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감안하여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 9. 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